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조현훈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
chhun007@mke.go.kr

그간의 성과 평가

2008년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선도산업 육성,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 및 30대 선도 SOC 사업[1]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사업('09 ~ '11, 이하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 등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가 비수도권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 · 20개 프로젝트에 703개 기업 등 1,10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년간 매출 8조 8천억원(수출 55억불 포함) 및 고용창출 17,600명을 목표로 총 7,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권역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충청권	디스플레이, 의약 바이오, 태양광 셀 등에서 2조 1,725억원의 매출, 14.4억불 수출
호남권	태양광 부품, 풍력, 광부품 소재 등에서 1조 2,733억원의 매출, 4.3억불 수출
동남권	그린카 핵심부품,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 7,882억원의 매출, 7.7억불 수출
대경권	수소연료전지, 로봇, 의료기기 등에서 1조 1,108억원의 매출, 3.4억불 수출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등에서 2,461억원의 매출, 0.8억불 수출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등에서 6,512억원의 매출, 1.9억불 수출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위원장 : 시 · 도지사 공동)를 신설하고, 선도산업 육성(지경부), 인재양성(교과부), 30대 선도 SOC 사업(국토부)으로 역할분담

▶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충청권 IT · BT · NT · GT 기반의 선도 산업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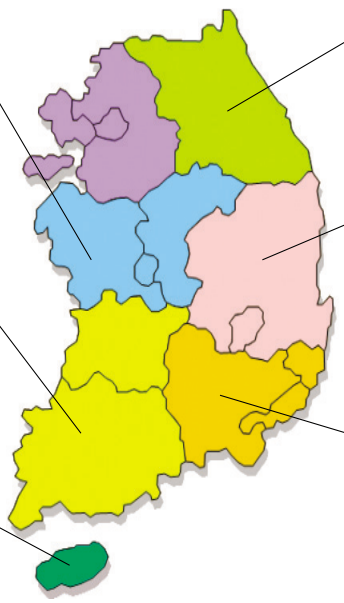
산업	프로젝트
의약바이오	차세대의약
차세대에너지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
NEW IT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호남권 녹색산업 융복합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산업 육성

산업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 · 모듈
라이프케어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광융복합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수송기계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 · 레저 선박

제주권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도약

산업	프로젝트
풍력서비스	제주형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 융합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휴양형 MICE



강원권 동북아 생명 · 건강산업의 신발전 지대 구축

산업	프로젝트
기능성신소재	세라믹/비철소재부품
바이오메디컬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케어	헬스테인먼트

대경권 유망업종의 미래성장동력화 및 주력산업의 첨단화 실현

산업	프로젝트
그린에너지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IT 융복합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기기부품	스마트자동차부품, 스마트모바일
첨단융합소재	첨단금속 · 세라믹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동남권 주력산업 고도화 및 그린 신산업 창출

산업	프로젝트
에너지플랜트	풍력부품, 원전설비
그린화학소재	화학융합소재
수송기계	지능형기계부품, 친환경차량부품, 항공
조선해양	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규모로 시범 도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업이 전문학사 및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연봉의 60% 이내, 최대 100만원/월)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장 기술인력 채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경제권 차원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독 또는 기업-기업간 추진하는 R&D보다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기업-대학-기술혁신지원기관간의 산 · 학 · 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우선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 참여조건을 대형과제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2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4])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이 권역내 지역기업에 대해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지원단-지역기업-선도대학간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권역별 · 프로젝트별 사업 추진성과를 매년 중간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0~40%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 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연차별 평가에서 하위 10% 정도의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를 규정화하여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4)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